

울산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교통·산업 인프라’ 투자

– 울산시장 대규모 도로·철도 투자 공약, 노후 인프라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

박 희 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hpark@cerik.re.kr

울산시장의 인프라 투자 공약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의 울산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다가올 울산의 새로운 30년에 대비하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였다. 송 시장은 울산을 북방경제 중심 협력기지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해양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 과제로 주력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 도로·철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전철(트램) 도입,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의 투자 계획을 핵심 공약에 포함하였다.

먼저, 울산시장의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송 시장은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 육성 및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조성, 도시 경전철(트램) 도입, 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 자율주행 지능형 도로(스마트 도로) 건설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또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시의 안전 제고를 위해 선제적 재난 통합 감시·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대형 복합 재난 대비 재해·재난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통 인프라 관련 공약은 남북축 위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울산의 동서축 교통망 확충과 교

통 혼잡 및 이동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인프라 실태 진단과 부문별 대응 방향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과 연계하여 울산의 주요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 및 추진 과제

핵심 공약	주요 추진 과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도시 경전철(트램) 도입 - 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 반부패 비리 청렴 정책 추진 - 시민 참여와 편의 증진 - 공공 및 민간 분야 일자리 2만개 창출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 울산 공공병원 설립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확대 -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 전통시장 활성화와 종합 컨설팅 지원 등
다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과 안전한 울산	- 울산형 시민 복지모형 구축 및 추진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지진 등에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 통합 감시·관리 체계 구축·운영 - 대형 복합 재난 대비 재해·재난 클러스터 조성 등
머무르고 싶은 생태·문화·관광 울산	-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 물 확보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 생활문화예술 지원 강화 - 체험형 미래과학전시관 건립 등



울산분항 전경(사진 제공 : 울산항만공사).

인프라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시설(도로, 교량)의 경우, 울산의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과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버스+철도)은 7대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인 반면, 교통혼잡비용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가장 높아 대체 교통수단 및 교통망 공급을 통한 혼잡 해소 및 생활권역 간 연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송 시장의 교통 인프라 투자 공약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국가시행 대상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포장도로와 도로 교량의 보수 건수 및 투입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량의 노후화와 관련한 보수 계획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울산의 물관리시설 중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상수관로는 전체의 36.2%로 전국 평균인 32.3%보다 높은 실정이며, 하수관로의 경우 51.7%가 사용연수 20년을 넘겼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5년 후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관로 비율은 상수관로의 경우 전체 대비 45.6%, 하수관로의 경우 5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 시에서 추진 중인 상·하수도 시설 용량 증설 및 정비 사업은 19건이며, 추진 예정인 사업은 13건이다. 하지만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울산의 전체 주거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3만 9,699호(전체의 11.0%)이다. 구·군별 분포를 보면 중구(17.4%)가 가장 높고, 남구(11.7%), 동구(9.7%), 울주군(9.5%), 북구(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은 시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없이 구·군별 도시재생지원센터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울산 내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 차원의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울산의 학교시설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은 전체의 40.7%(415동),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21.3%(217동)이다. 최근 교육시설의 재해 위험 대비 및 안전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교육 환경 개선 및 내진성능 보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송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의 하나로 전통시

장 활성화를 제시했는데, 2015년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울산 전통시장의 소화기 불량 및 미설치율은 63.2%로서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정밀 안전진단과 화재 관련 안전시설 예산 확충을 추진해야 하며, 노후시설 개선도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울산 내 석유화학단지의 지하 배관 중 화학관의 35.0%, 가스관의 55.9%, 송유관의 45.6%가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공약 사업인 석유화학 노후시설 및 지하배관 안전진단과 개·보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울산의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추진도 올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송 시장이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 재난 통합 감시·관리 체계 구축과 대형 복합 재난 대비 재해·재난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포함시킨 만큼, 산업단지의 노후설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울산 내 문화시설은 총 40개소로, 인구 대비 문화시설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 4번째에 해당되며,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문화시설은 7개소(전체의 17.5%)이다. 체육시설은 총 11개소로 타 지역과 비교해 인구 대비 개소 수는 적으나 인구 대비 체육시설 면적은 높아 대규모 형태 공급이 많은 편이며, 전반적인 노후 정도는 양호한 상태이다.

한편, 생활문화예술 지원 강화 및 각종 문화·관광시설 확충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문화 및 체육 시설의 양적 확충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니즈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이뤄져야

지난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7명 중 61.7%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삶의 질 제고에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요소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시민들은 울산의 인프라 시설물이 그 중요도에 비해 성능과 안전도는 낮은 반면, 노후도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침수저감 시설과 산업단지, 전통시장의 노후도 및 안전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침수저감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도로,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울산의 인프라 현황과 시민들의 니즈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여가·건강 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제고, 생활 안전·환경의 질 제고 등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프라 투자의 전략 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 위상의 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 만큼 울산시 역시 교통과 산업 시설뿐만 아니라 물관리시설, 주거·교육시설, 경계시설, 문화·체육시설의 현황에 기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성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ND